長 九寸七分 文樣이 있는 두께 一寸 寫眞左에서二) 그리고 花甁으로 推測되는 口缺의 土甁이 出土되었는데 마치 高麗花甁과 恰似하다。現高一尺一寸四分 肩巾 六寸五分 底徑 四寸九分 寫眞左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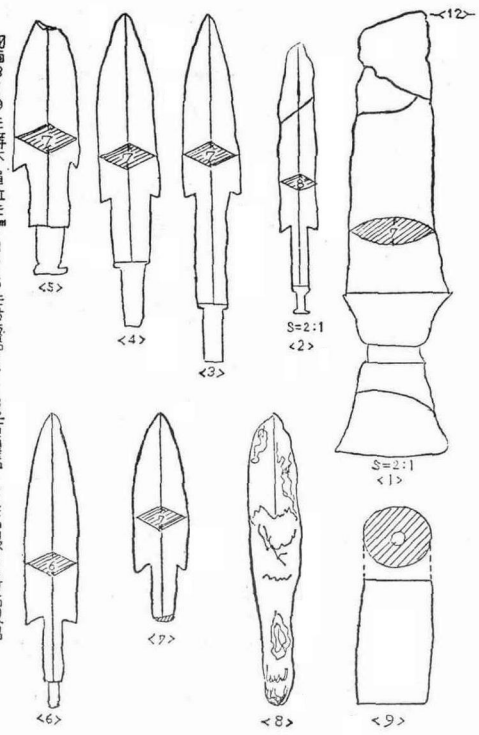
公州 花月里 出土의 石器

金 永 培

公州에서 禮山街道로 銅川을 지나 約 四里쯤 가면 維鳩川이 앞으로 흐르고 川邊東쪽에는 順坦한 黃土丘陵地帶가 連續되고 있다。出土地點은 公州郡 寺谷面 花月里 林野 六九番地 崔仁洙氏의 果樹園인데 整地作業中 五月十三日 發見。公州에서 初有의 一括遺物이므로 紹介한다。

1、二段柄式石劍(圖面(1)一個

灰色粘板岩의 磨製石劍으로서 劍身一部가 缺失되고 二段柄式의 石劍이다。全長二三·八cm 劍身長一五·二cm 劍身과 柄部의 橫斷面은 杏仁形



圖面三—九는等大·單位는 mm·一‖五는 粘板岩·六—八은 黑曜石·九는 碧綠色天河石製임

2、異形莖式石鏃(圖面(2)(5)二個

모두 黃白色粘板岩의 磨製石鏃인데 鏃身에는 陵線이 솟아 鏃身에서 莖部一段까지 連續되었으며 莖一段部의 橫斷面은 六角形 二段部의 斷面은 長方形으로 莖部끝의 樣式이 異形을 이루고 있다。凸(2)의 總長 一四·三cm 鏃身長 九·八cm (5)의 總長 六·八cm 鏃身長 三·八cm

3、二段莖式石鏃(圖面(3)(4)二個

(3)은 灰色粘板岩 (4)는 黃色粘板岩 모두 二段莖式 磨製石鏃으로서 鏃身에는 陵線이 솟아 莖部一段까지 連續되었으며 莖一段部의 橫斷面은 六角形 二段部는 長方形 (3)의 總長 九·二cm 鏃身長 四·八cm (4)의 總長 八·四cm 鏃身長 五cm

4、二段柄式石鏃(圖面(6)(7)二個

黑曜石磨製石鏃으로서 鏃身에는 陵線이 솟아 一段莖部까지 連續되었으며 莖部一段의 橫斷面은 六角形 柄部는 丸形。(6)의 總長 七·九cm 鏃身長 五·五cm (7)의 總長 五·五cm 鏃身長 四·二cm

5、未完成石鏃(圖面(8)一個

黑曜石으로 總長이 七·八cm

6、管玉(圖面(9)一個

碧綠色天河石의 管玉인데 鑿孔의 方式은 兩端에서 中心을 잡아 파내서 貫通케 하였으며 아름다운 光澤이 나타나고 있다。中間이 불른데 總長 三·三cm 直徑 一·七cm 孔徑 四mm

東亞大 藏 金銅佛과 康熙銘砲

鄭 永 鎬

지난 一月 八日 洪思俊氏와 함께 東亞大博物館에서 左記 兩品을 注目